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先秦儒學的 의미

박용금* · 조용태** · 임병학***

목 차

1. 시작하는 말
2. 8대 핵심 덕목과 선진유학
3.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의미를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그리고 『예기(禮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은 예·효·소통·협동·정직·책임·존중·배려로 선진유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에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화합하는 것이며, 또 하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자, 동물과 구별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의 근본이 되며,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 소통은 내면의 나와 통하고, 나와 하늘이 소통되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소통되는 것이다. 공경은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근본이 된다. 협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 제1저자, (사) 청풍인성예절협회 회장

** 제1저자, 원광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기공 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정직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바르고 곧은 마음에서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책임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와 덕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실행해 가는 것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지키는 마음가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사람의 인격적 마음인 인(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배려는 관심과 안내 그리고 애정의 표현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말과 행동이다.

이상의 선진유학에서 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인성 덕목의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인성교육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인성교육, 선진유학, 덕목, 예·효·소통·협동, 정직·책임·존중·배려

1. 시작하는 말

현대사회의 인간성 회복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공포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 하고, 8대 핵심가치 덕목을 규정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으로 핵심가치 덕목을 설정한 것은 정책연구에 참여했던 윤리학자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핵심 덕목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서양의 윤리학적 전통, 긍정심리학, 도덕 심리학, 미국의 인성교육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폭넓게 활용하고, 인성교육·도덕교육의 주요 덕목들을 설정한 국가(미국, 일본,

싱가포르)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덕목을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인성교육의 근거가 되는 인간 본성의 이치와 도덕적 삶의 길을 밝히고 있는 선진유학의 입장에서 8대 핵심가치 덕목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는 것이다.¹⁾ 둘째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윤리 도덕을 강조한 유교의 생활규범과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진유학에서 논한 윤리적 삶의 문제를 현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인성 덕목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심성을 바르게 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이롭게 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실천적 윤리 덕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는 인성이 사회적 이슈이고,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²⁾ ‘인성교육’을 검색하면, 2018년 한 해만도 491편의 국내 학술지 논문이 검색되고 있다.

논문들은 대부분 인성교육의 사례연구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방안에 관한 것이고, 본 논문과 관계되는 선진유학과 인성에 대한 연구,³⁾

1) ‘오늘날 인성교육에서 인성 덕목과 인성교육 개념에 대한 논의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고 있다. 즉, 인성교육의 담론은 현재 제반 문제들의 주변을 걸 돌면서 논의하고 있다.’(김민수, 『인성교육』담론에서 ‘인성’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 8-4,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73쪽.)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생활습관교육, 예절교육, 기초질서교육, 바른 언어문화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사회정서 기술교육, 예술교육과 스포츠교육 등등 온갖 것을 인성교육 이라고도 하여 도대체 무엇이 진정한 인성교육인지조차 혼동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유병열, 『인성교육의 덕교육적 접근과 실천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6-1,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2015, 303쪽.)

2) <http://www.riss.kr/index.do>

3) 이동인, 『先秦儒學의 ‘學’과 人性』, 『유학연구』 23,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0 ; 황수영, 『유학의 인성 이해와 전인교육』, 『동서철학연구』 80, 한국동서철학회, 2016 등이 있다.

고전과 인성을 연결한 논문도 몇 편이 있다.⁴⁾ 또 인성교육의 덕목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⁵⁾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선진유학에서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선진유학의 경전을 대표하는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그리고 『예기』와 『효경』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정한 예·효·소통·협동·정직·책임·존중·배려의 8대 핵심가치 덕목을 순서에 따라 2개씩 묶어서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직접 찾을 수 없는 것은 유사한 개념을 찾아서 의미를 찾고자 한다.⁶⁾

2. 8대 핵심 덕목과 선진유학

2.1. 예(禮)와 효(孝)

선진유학 경전에서 예(禮)의 의미는 『예기』의 여러 곳에서 직접 찾을 수 있다. 『예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예라는 것은 천시(天時)에 합하며, 땅의 재물을 베풀며, 귀신에 순응하며 사람의 마음에 화합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⁷⁾

4) 윤태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소학』의 효사상」, 『유학연구』 43,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8 ; 김동민, 「『논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유교사상문화연구』 71, 한국유교학회, 2018 ; 고재석, 「『논어』기반 인성교육 평가척도의 이론토대 연구」, 『東洋哲學研究』 88, 동양철학연구회, 2016 등이 있다.

5) 최신일, 「도덕과 인성교육의 주요 가치 덕목 연구」, 『초등교육연구논총』 32-2, 대구대학교, 2016 ; 박인현,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가치·덕목과 법 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8-3,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등이 대표적이다.

6) 예를 들면 소통(疏通)의 경우, 직접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소통의 의미를 가진 한자인 ‘통할 통(通)’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의미에서 ‘들을 청(聽)’, 서로 사귀는 ‘사귌 교(交)’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 고찰하였다.

7) 『예기』, 「禮器」, “禮也者是合於天時하며 設於地財하며 順於鬼神하며 合於人心하며 理萬物者也라”

즉, 예는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하늘의 운행 원리를 알아서 땅에서 재물을 배풀고, 귀신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화합하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치라는 것이다. 또 『곡례(曲禮)』편에서는 ‘예라는 것은 가깝고 먼 것을 정하고, 싫어하고 의심나는 것을 결단하고, 같음과 다름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원리⁸⁾’라 하여, 예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고, 이러한 예에는 ‘기준이 되는 것 3백 가지가 있고, 곡진하고 자세한 예는 3천 가지가 있다⁹⁾’고 하였다.

또한 『예기(禮器)』편에서는 “선왕이 예를 세움에 근본이 있고 문채(진리가 드러나는 것)가 있으니, 충과 믿음은 예의 근본이고, 정의와 이치는 예의 문채이니, 근본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문채가 없으면 행할 수 없는 것이다.”¹⁰⁾라고 하여, 예의 근본은 충심과 믿음이고, 정의와 이치는 예를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곡례』편에서는 ‘예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으로 높이는 것으로, 비록 시장에서 짐을 지고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높여야 하고, 부귀한 사람도 당연히 높여야 한다. 그런데 부귀한 사람은 예를 모르면 교만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빈천한 사람은 예를 모르면 삶의 가치가 접어두고 아첨하게 된다.’¹¹⁾고 하였다.

『예기』의 『악기(樂記)』편에서는 예와 악을 함께 논하고 있다.

“무릇 소리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음악은 윤리와 통하는 것이니, …… 음악을 알면 곧 예에 가까운 것이다. 예의와 음악을 모두 얻은 것을 덕이 있다고 이르니, 덕이라는 것은 자득하는 것이다.”¹²⁾

8) 『예기』, 『곡禮』, “夫禮者는 所以定親疏하며 決嫌疑하며 別同異하며 明是非也이니라”

9) 『예기』, 『禮器』, “禮에 有大有小하며 有顯有微하니 大者를 不可損이며 小者를 不可益이며 顯者를 不可揜이며 微者를 不可大也니라. 故로 經禮三百과 曲禮三千이 其致는 一也니”

10) 『예기』, 『禮器』, “先王之立禮也 | 有本有文하니 忠信은 禮之本也오 義理는 禮之文也니 無本이면 不立하고 無文이면 不行하니라”

11) 『예기』, 『곡禮』, “夫禮者는 自卑而尊人하니 雖負販者라도 必有尊也니 而況富貴乎? 富貴而知好禮하면 則不驕不淫하고 貧賤而知好禮하면 則志不懼이니라”

예의(禮儀)와 음악(音樂)은 모두 자득하는 것인데, 음악이 자신의 내면을 닦는 것이라면, 예의는 자신의 외면을 닦는 것으로 인간의 윤리성과 직접 관계됨을 알 수 있다.

『예기』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예로 밝히고 있다. 동물은 암컷을 취하는 데 아버지와 새끼가 같이 하지만, 인간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는 성인이 예로써 사람에게 사람다움의 근본을 가르쳐 인간과 동물을 구별한 것이다.¹³⁾

한편 『논어』에서 밝힌 예를 고찰해보면, 먼저 『안연』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안연이 인에 대하여 물으신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사욕을 이겨서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 되는 것이니, 하루를 극기복례(克己復禮)하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갈 것이니, 인을 함이 자기에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안연이 그 목록을 청하여 물으신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마는 것이다. 안연히 말하기를 제가 비록 민첩하지는 못하나 청한 이 말씀을 받들고자 합니다.”¹⁴⁾

예는 인에 근거를 둔 것으로 예가 아니면 살아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또 『요왈(堯曰)』편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명을 알

12) 『예기』, 『樂記』, “凡音者是生於人心者也 樂者是通倫理者也니 …… 知樂이면 則幾於禮矣니라. 禮樂皆得을 謂之有德이니 德者是得也라”

13) 『예기』, 『曲禮』, “鸚鵡 能言하나 不離飛鳥하며 猩猩 能言하나 不離禽獸니 今에 人而無禮면 雖能言하나 不亦禽獸之心乎아? 夫唯禽獸 無禮故로 父子聚麀하나라 是故로 聖人作하여 爲禮以教人하며 使人以有禮하여 知自別於禽獸이니라”

14) 『論語』, 『顏淵』, “顏淵이 問仁한대 子 曰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 歸仁焉하나라니 爲仁이 由己니 而由人乎哉아 顏淵이 曰請問其目하노이다디 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顏淵이 曰回雖不敏이나 請事斯語矣로이다”

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의를 알지 못하면 입지를 할 수 없고, 말썬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¹⁵⁾라고 하여, 예의는 군자가 되는 것으로 천명을 이는 것에 근본하고,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고, 성인의 말썬을 이는 것이라 하였다. 예의(禮儀)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어버리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맹자』에서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을 것이다.”¹⁶⁾라고 하여, 예의 근본인 염치를 밝히고 있다. 부끄러움은 염치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것이니 염치없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선진유학 경전에서 예는 하늘의 운행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화합하는 것으로, 일상적 예절의 의미보다는 근원적인 뜻을 밝히고 있다.¹⁷⁾

다음으로 효¹⁸⁾에 대해 고찰해보면, 『효경(孝經)』에서는 효의 연원과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5) 『論語』, 『堯曰』, “孔子 | 曰不知命이면 無以爲君子也오 不知禮면 無以立也오 不知言이면 無以知人也니라”

16) 『孟子』, 『盡心章句上』, “孟子 | 曰人不可以無恥니 無恥之恥면 無恥니라”

17) 일반적으로 예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친근한 행위이고, 자발적이고 내면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김선주,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 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 개발』, 『교양연구회』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22쪽)

또 예절이란 예의범절의 줄임말로 예의(禮儀), 예법(禮法) 등을 의미한다. 예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관념이나 전통 등을 일컫는 것이라면, 예절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면, 예의의 실천행위라고 볼 수 있다.(이창호 외, 『21세기 바른 인성을 위해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인성 8대 덕목』, 벚나래, 2018, 155쪽)

18) 전통적으로 ‘효’는 보본의식(報本儀式)에서 출발하여, 자신에게 생명을 준 근본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으로 살아 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받드는 것이다.(이창호 외, 앞의 책, 281쪽)

“내 몸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감히 헐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몸을 세웠거든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 효도는 아버지 섬김에서 시작하고, 임금을 섬김이 가운데이고, 자신을 세우는 것이 마침이다.”¹⁹⁾

효도의 시작과 효도의 가운데, 효도의 마침을 통해 효의 근본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등 어느 하나도 효도가 아님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효도는 자신을 수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인용문에서 내 몸은 온전히 보존하는 효도의 시작은 단순히 육체의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하나가 된 몸임을 알 수 있다. 즉, 신체발부(身體髮膚)에서 신(身)은 몸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이 있음을 ‘수신(修身)’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몸을 닦는 수신은 육체적인 몸과 정신적인 마음을 함께 닦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²⁰⁾

또 『예기』에서는 “효자가 부모님을 봉양함에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부모님의 몸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며, 부모님의 음식을 진실하게 봉양하는 것이다.”²¹⁾라고 하여, 효의 근본이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맛있는 것으로 봉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논어』에서도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의 효자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개나 말들도 모두 그렇게 기르는 것이니, 공경함이 없으면 무엇이 다르겠는가?”²²⁾라고 하여, 효도를 함에 공경함이

19) 『孝經』, 제1장, “身體髮膚를 受之父母라 不敢毀傷이 孝之始也오 立身行道하여 揚名於後世하여 以賢父母 孝之終也니 夫孝는 始於事親이오 中於事君이오 終於立身이니라”

20) 임병학, 『중용, 주역으로 풀다』, 동남풍, 2018, 120쪽.

21) 『예기』, 『內則』, “孝子之養老也에 樂其心하고 不違其志하며 樂其耳目하며 安其寢處하며 以其飲食으로 忠養之라”

없으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맹자』에서는 효의 본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증자가 아버지 증석을 봉양하되 반드시 술과 고기로 하시더니, 거들 때에 반드시 줄 곳을 청하시며 남은 것이 있는지 묻거든 반드시 있다고 하시었다. 증석이 돌아가시거늘 증원이 증자를 봉양하되 반드시 술과 고기로 하시더니, 거들 때에 줄 곳을 청하지 않으며 남은 것이 있는지 묻거든 없다고 하니 장차 다시 내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입과 몸을 봉양하는 것이니 만약 증자이면 뜻을 봉양하는 것이라 하겠다.”²³⁾

증자(曾子)가 실천한 양지(養志)가 진정한 효도이고, 증원이 실천한 양구체(養口體)는 껍데기 효라고 하였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효도의 길이지, 맛있는 것·좋은 옷·좋은 집 등으로만 받드는 것은 개와 돼지를 기르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적 삶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모의 삶을 받드는 것도 큰 효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참다운 효도가 무엇인지는 생각하게 한다.

또 『맹자』에서는 오륜(五倫)에서 효도의 근본이 되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이 가장 으뜸임을 밝히고,²⁴⁾ 불효에 대하여,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 말하는 불효의 다섯 가지는 그 몸을 게을리 하여 부모님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불효이고, 바둑 등 오락을 즐기고 술을 좋아하여

22) 『論語』, 『爲政』, “子 | 曰今之孝者是 是謂能養이니 至於犬馬하여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리오”

23) 『孟子』, 『離婁章句上』, “曾子養曾皙하시되 必有酒肉이러시니 將徹할새 必請所與하시며 問有餘어든 必曰有라하시니 曾皙死어늘 曾元養曾子하시되 必有酒肉하더니 將徹할새 不聽所與하며 問有餘어시든 曰亡矣라하니 將以復進也라 此所謂養口體者也니 若曾子면 則可謂養志也니라 事親을 若曾子者可也니라”

24) 『孟子』, 『滕文公章句上』, “后稷이 教民稼穡호대 樹藝五穀한대 五穀熟而民人育하니 人之有道也 飽食煖衣하고 逸居而無教면 則近於禽獸일새 聖人이 有憂之하사 使契爲司徒하여教以人倫하시니 父子有親이며 君臣有義며 夫婦有別이며 長幼有序며 朋友有信이니라”

부모님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불효이고, 재물을 좋아하고 처자식만 생각하여 부모님의 봉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 세 번째 불효이고, 이목의 욕망을 쫓아서 부모님을 죽이게 하는 것이 네 번째 불효이고, 용맹을 좋아하며 싸움질하여 부모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섯 번째 불효이다.”²⁵⁾라고 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 불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의 근본이 되며, 또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가 진정한 효임을 알 수 있다. 효는 인간 행위의 근본으로 자신의 인격 수양과 사회적 관계,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²⁶⁾

예(禮)와 효(孝)의 한자적 의미를 보면, 시(示)와 풍년 풍(豐 = 曲 + 豆)으로 하늘이 내려준 사랑에 감사를 올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효는 노(老)와 자(子)로, 자식이 늙은 부모를 업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지만, 또 토(土 = 十 + 一)와 별(ノ) 그리고 자(子)로, 어린 자식이 하늘의 진리를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가 있다.²⁷⁾

2.2. 소통(疏通)과 협동(協同)

현대사회는 공감, 공평, 인내, 노력의 소통시대라고 한다. 우리의 삶은 사

25) 『孟子』, 『離婁章句下』, “孟子 | 曰世俗所謂不孝者五 | 惰其四肢하여 不顧父母之養 | 一不孝也 | 博奕好飲酒하여 不顧父母之養 | 二不孝也 | 好貨財하며 私妻子하여 不顧父母之養 | 三不孝也 | 從耳目之欲하여 以爲父母戮 | 四不孝也 | 好勇鬪闖하여 以危父母 | 五不孝也라”

26)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효(孝)를 부모님을 대하는 행동, 언어표현, 마음 헤아림과 감동 드리기, 성실한 모습으로 잘 성장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김선주, 위의 논문, 223쪽)

27) 임병학,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8, 230쪽.

람들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온라인상에서 맺은 관계까지 더해져 우리는 더 조밀해진 관계망 속에 살고 있다.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²⁸⁾

선진유학의 경전에서 직접 소통(疏通)을 찾을 수는 없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통할 통(通)’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의 ‘들을 청(聽)’, 사람들과 서로 사귄다는 ‘사귄 교(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주역』에서는 통(通)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군자가 자기의 본성 가운데에서 이치에 통하여 바른 자리에 몸을 거하니,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고 사지에 빛나며, 사업에서 드러나니, 아름다움의 지극한 것이다.”²⁹⁾

우리가 지향하는 군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소통하여 이치를 깨우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과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즉, 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어』에서는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중하고 평범한 대중도 포용한다.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다. 내가 크게 현명하다면 누구나 받아 줄 것이다.”³⁰⁾라고 하여, 내가 어질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고 내가 어질 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된다는 것이다. 자신과의 대화가 잘 되어 내면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람은 당연히 타인과의 소통을 잘 할 수 있다.

또한 『주역』에서는 “역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지

28) 국립국어원 ‘소통’ 검색(<http://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List.do>)

29) 『周易』, 「重地坤卦」, 文言, “君子 | 黃中通理하며 正位居體하여 美在其中而暢於四支하며 發於事業하여 美之至也라”

30) 『論語』, 「子張」, “君子는 尊賢而容衆하며 嘉善而矜不能이니 我之大賢與인댄 於人 에 何所不容이며”

속된다.”³¹⁾라 하고, ‘남녀가 서로 어긋나야 그 뜻이 통한다.’³²⁾라고 하여, 막히고 어려운 것은 소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어떠한 일이 막히면 사람의 마음이 간절해서 하늘과 통하게 되고, 나아가 세상의 이치와 통하게 되는 것이다.

소통은 ‘듣기’, ‘경청’, ‘공감’, ‘역지사지’, ‘상호 작용성’, ‘반대의견 듣기’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논어』에서는 “지금 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보는 것이니, 나와 함께 이것을 고치는 것이다.”³³⁾라고 하여,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소통의 의미인 ‘사귀 교(交)’를 보면, 『주역』에서는 “단에서 말하기를 태(泰)는 적은 것은 가고 큰 것은 와서 길하여 형통하다는 것은 곧 천지(天地)가 사귀어 만물이 통하는 것이며, 위(하늘)와 아래(인간의 마음)가 사귀어 그 뜻이 같음이라”³⁴⁾라고 하여,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이 사귀어 소통됨을 논하고 있다.

『논어』에서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안평중은 사람과 더불어 사귀를 잘 하였다. 오래하고 공경하는구나!”³⁵⁾라고 하여, 서로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경하는 마음이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 『맹자』에서도 “만장이 물어 이르기를 감히 여쭙겠습니다. 교제함은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공손함이니라.”³⁶⁾라고 하여, 서로가 사귀에는 공경을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공경의 경(敬)은 경천애인(敬天愛人)으로, 하늘을 받드는 마음이 근본이 되고, 그것이 확장되어 다른 사람을 공경하게 되는 것이다.

31) 『周易』, 『繫辭下』, 제2장, “易이窮則變하고 變則通하고 通則久라”

32) 『周易』, 『火澤睽卦』, 彖辭, “男女 | 睽而其志 | 通也며”

33) 『論語』, 『公治長』, “今吾 | 於人也에 聽其言而觀其行하노니 於子與에 改是와라”

34) 『周易』, 『地天泰卦』, 彖辭, “彖曰泰小往大來吉亨은 則是天地 | 交而萬物 | 通也며 上下 | 交而其志 | 同也라”

35) 『논어』, 『公治長』, “子 | 曰晏平仲은 善與人交로다 久而敬之은어”

36) 『맹자』, 『萬章章句下』, “萬章 | 問曰敢問交際는 何心也잇고 孟子曰 恭也니라”

따라서 공경을 통해 사귀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한편 『맹자』에서는 “맹자께서 이르시길 사람이 살펴보는 것에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눈동자는 능히 그 악을 가리지 못하니 가슴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밝고, 가슴 속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살펴보면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는가?”³⁷⁾라고 하여, 상대방이 옳은지 그른지는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상대방과 만남에서는 그 눈동자를 살펴서 말의 진실성을 확인할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다.

소통의 한자를 분석하면, ‘트일 소(疏)’는 흐를 류(流)에서 수(水)가 소(疋)로 바뀐 것으로, 흘러서 핀다는 것이고, ‘통할 통(通)’은 착(辵)과 용(甬)으로, 하늘의 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주역』에서는 “형이상자를 도(道)라 하고, 형이하자를 기(器)라 하고, 변화해서 드러나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미루어 행하는 것을 통(通)”³⁸⁾이라 하여, 통은 형이상·하의 이치를 미루어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유학에서 소통은 내 마음과 내가 통하고, 내 마음과 하늘마음이 소통되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소통되는 것이라 하겠다. 공경하는 자기 마음이 근본이 되어서 하늘과도 소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협동을 고찰해보면, 일반적으로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 또는 ‘힘을 합하여 돕는 것’으로 정의된다.³⁹⁾ 또 협동 또는 팀워크는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공동의 목적이나 목

37) 『맹자』, 『離婁章句上』, “孟子曰 存乎人者 莫良於眸子하니 眸子不能掩其惡하니 胸中正이면 則眸子瞭焉하고 胸中不正이면 則眸子眊焉이니라 聽其言也요 觀其眸子면 人焉廋哉리오”

38) 『周易』, 『繫辭上』, 제8장, “是故로 形而上者를 謂之道요 形而下者를 謂之器요 化而裁之를 謂之變이요 推而行之를 謂之通이니”

39) 국립국어원 ‘협동’ 검색 (<http://www.korean.go.kr/front/search/searchList.do>)

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여 일정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⁴⁰⁾

선진유학에서 협동의 의미를 가진 한자는 ‘한 가지 동(同)’과 ‘화합 화(和)’로 분석된다. 먼저 『주역』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를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구해서 물은 습한 데로 흐르고 불은 마른 데로 나아간다.”⁴¹⁾라고 하여, 소리와 기운이 같은 것은 서로 응하고 구한다고 하였고, 또 “하늘과 땅이 어긋나서 그 일이 하나가 되고, 남녀가 어긋나서 그 뜻이 통하고, 만물이 어긋나서 그 일이 류가 되는 것이다.”⁴²⁾라고 하여, 서로 어긋나고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하나로 통하는 과정이라 하였다.

특히 『주역』에서 동(同)이 들어가는 천화동인괘(天火同人卦)의 효사(爻辭)를 풀이한 『계사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동인괘에서 먼저는 영영 울고 뒤에는 웃는 것이라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도는 혹은 나가고 혹은 처하고 혹은 침묵하고 혹은 말하나,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 그 날카로움이 금(金)을 절단한다. 마음을 함께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은 것이다.”⁴³⁾

40) 이창호 외, 『21세기 바른 인성을 위해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인성 8대 덕목』, 벚나래, 2018, 249쪽

협동은 공동과제를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 구성원이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여 서로 돕는 것으로 단순한 조력 행위이며, 협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성원간의 정확한 역할 할당 및 개인의 책임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협동으로 정의된다.(김선주,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 개발』, 『교양연구회』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31쪽)

41) 『주역』, 『重天乾卦』, 文言, “子 | 曰同聲相應하며 同氣相求하여 水流濕하며 火就燥하며”

42) 『주역』, 『火澤睽卦』, 彖辭, “天地 | 睽而其事 | 同也며 男女 | 睽而其志 | 通也니 萬物 | 睽而其事 | 類也라”

43) 『주역』, 『繫辭上』, 제8장, “同人이 先號咷而後笑니 子曰君子之道 | 或出或處或默或語나 二人 | 同心하니 其利 | 斷金이며 同心之言이 其臭 | 如蘭이로다”

즉,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협동을 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뒤에는 웃게 되며, 또 군자가 때에 맞는 행동으로 협동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결단하는 것이고, 그 화합하는 말은 난초과 같이 은은하게 향기가 퍼진다는 것이다.

『맹자』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⁴⁴⁾을 말하여, 지도자와 백성이 협동으로 하나가 되는 정치원리를 논하고 있다. 이는 백성과 백성, 백성과 군주가 서로 협동하여,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논한 것이다. 또 맹자는 ‘협동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⁴⁵⁾

『논어』에서도 “군자는 은혜롭게 하지만 낭비하지 않고, 수고롭게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욕망이 있지만 탐욕을 부리지 않고, 크게 통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위엄이 있지만 사납지 않는 것이다.”⁴⁶⁾라고 하여, 한 집단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구성원들과 화합하고 협동하기 위해서는 군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맹자』에서는 협동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늘 때는 땅의 이로움만 같지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들의 화합만 같지 못하다.”⁴⁷⁾

하늘의 때와 땅의 이로움 보다 사람들이 화합하는 협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진유학에서 협동은 사람들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

44) 『맹자』, 「公孫丑章句下」, “與民同樂이니라”

45) 『맹자』, 「離婁章句下」, “君之視臣이 如手足則臣視君을 如腹心하고 君之視臣이 如犬馬則臣視君을 如國人하고 君之視臣이 如土芥則臣視君을 如寇讐니라”

46) 『논어』, 「堯曰」, “君子 | 惠而不費하며 勞而不怨하며 欲而不貪하며 泰而不驕하며 威而不猛이니라”

47) 『孟子』, 「公孫丑章句下」, “孟子 | 曰天時 | 不如地利오 地利 | 不如人和니라”

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⁴⁸⁾ 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협동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고, 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3. 정직(正直)과 책임(責任)

선진유학에서는 정직⁴⁹⁾을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고찰해보면, 먼저 『주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육이는 곧고 방정하고 큰 것이라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 곧음은 그 바른 것이고, 방정은 그 의(義)이니, 군자가 공경으로써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써 밖을 방정하게 하여 공경과 정의가 서면 덕이 외롭지 않으니, 곧고 방정하고 큰 것이라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즉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⁵⁰⁾

즉, 직(直)은 정(正)이고, 정직은 자기의 심성 내면의 문제로 공경하는 마음인 것이다. 곧음인 직은 하늘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고, 정(正)은 하늘의 곧음을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다. 군자는 공경을 통해 하늘의 뜻을 바르게 하고, 정의를 통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 『계사상』에서는 “무릇 건도(乾道)는 그 고요함에 전일하고, 그 움직

48) 협동에서, 맞을 협(協)은 십(十)과 력(力) 3개로, 천지인의 힘이 서로 맞는 것이고, 동(同)은 경(門)과 일(一), 구(口)로 하늘 아래에서 하나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9)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이라고 정의한다. 즉, 현재의 마음 상태와 반대로 마음을 포장하지 않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꾸미지 않으며, 현재 일어나는 순수한 마음 상태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창호 외, 앞의 책, 128쪽)

50) 『주역』, 『重地坤卦』, “六二是 直方大라 不習이라 无不利니라 …… 直은 其正也오 方은 其義也니 君子ㅣ 敬以直內하고 義以方外하니 敬義立而德不孤하고 直方大不習无不利는 則不疑其所行也니라”

임에 곧은 것이라 이로써 위대함이 생기는 것이다.”⁵¹⁾라고 하여, 하늘의 작용이 곧 정직임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정직은 하늘의 뜻이 곧게 작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십(十)과 그 작용을 의미하는 일(一)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된다.⁵²⁾

또한 『논어』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의 삶은 정직해야 하니, 정직이 없는 삶은 요행이 죽음을 면하는 것이다.”⁵³⁾라고 하여, 정직은 삶의 바탕으로 정직하지 못한 삶은 요행히 죽음을 면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논어』에서는 정직의 구체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고 하겠는가? 혹은 식초를 빌리거늘 그 이웃에서 식초를 빌려서 주었는데.”⁵⁴⁾

식초를 빌리러 온 사람에게 식초가 없다고 해야지, 자기는 식초가 없는데 이웃집에서 빌려서 주는 것은 정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식초를 가지고 있는 이웃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정직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무리에는 몸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거늘 그 아들이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

51) 『주역』, 『계사상』, 제6장, “夫乾은 其靜也 | 專하고 其動也 | 直이라 是以로 大 | 生焉하니”

52) 정직의 한자를 보면, 정(正)은 일(一)과 지(止)로, 하나에 그치는 것이고, 직(直)은 십(十)과 목(目) 그리고 일(一)로, 십에서 일의 이치를 보는 것이다.

53) 『論語』, 『雍也』, “子 | 曰人之生也 | 直하니 罔之生也는 幸而免이니라”

54) 『論語』, 『公治長』, “子 | 曰孰謂微生高直고 或이 乞醯焉이어늘 乞諸基鄰而與之 은여”

를 우리 무리의 정직한 사람은 이것과 다르니, 아버지가 지식을 위하여 숨기고, 자식이 아버지를 위한 숨기는 것이니, 정직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⁵⁵⁾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은 아버지의 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에 정직이 있다는 것이다. 주희(朱熹)는 “부자가 서로 숨기는 것은 천리(天理) 이자 인정(人情)의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직을 구하지 않고 정직은 그 가운데 있다.”⁵⁶⁾라고 하여, 살인과 같은 중대 범 죄나 반란 등 국가의 위태로운 일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부자간의 정직은 사회적 이치를 초월한 천륜(天倫)의 관계임을 강조한 것이다.

『맹자』에서는 “지금 살인자가 있거늘 혹은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물으면 곧 장차 응해서 말하기를 죽어야 한다 하리니, 저가 다시 말하기를 누가 죽여야 합니까 하면 곧 장차 응해서 말하기를 법관이 재판해서 죽이는 것이다.”⁵⁷⁾라고 하여, 개인적인 보복은 또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직한 법의 집행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정직은 인생의 본질적인 물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존재하는 근거가 하늘에 있다면, 그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정직이고, 그것을 세상에 당당하게 실천하는 것이 정직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인생을 주도하며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정직은 어디서나 당당하고 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하겠다.⁵⁸⁾

55) 『論語』, 『子路』, “葉公이 語孔子曰吾黨에 有直躬者하니 其父 | 攘羊이 어늘 而子 | 證之하니이다 孔子 | 曰吾黨之直者는 異於是하니 父爲子隱하며 子爲父隱하니니 直在其中矣니라”

56) 『논어집주』, 『子路』, “父子相隱, 天理人情之至也, 故不求爲直, 而直在其中.”

57) 『孟子』, 『公孫丑章句上』, “今有殺人者어늘 或問之曰人可殺與아 하면 則將應之曰可라 하리니 彼如曰孰可以殺之오하면 則將應之曰爲士師可以殺之라”

58)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정직’을 정직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신념’, ‘신념’을 대화나 행동으로 표현 하는 ‘행위’, 정직한 행위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부정직한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정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김선주,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

일반적으로 정직은 바른 마음으로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마음의 용기를 내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다.

다음으로 책임⁵⁹⁾에 대한 선진유학적 의미를 고찰하면, 먼저 『주역』에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이 적은데 자리는 높고, 지혜는 작은데 도모하는 일을 크고, 힘은 적은데 임무는 무거우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⁶⁰⁾ 라고 하여, 자신의 덕과 지혜와 힘에 맞는 책임을 논하고 있다. 즉, 책임은 맡은 소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진행한 데 따른 결과와 결과가 불러오는 긍정, 부정이 영향을 모두 수용하는 의무감이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덕과 지혜 그리고 힘에 맞는 일을 맡아야 한다.

또 ‘윗자리에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지만 근심하지 않는다’⁶¹⁾라고 하여,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의심하고 근심하지 않는 자기 책임이 필요한 것이다.

『논어』에서는 책임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중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넓고 굳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임무는 막중하고 도는 멀기 때문이다.”⁶²⁾

‘임중도원(任重道遠)’은 책임이 우리의 인생과 관계됨을 밝힌 것이다. 나

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 개발, 『교양연구회』 11-3,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25쪽.)

59) 책임을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되 자신이 맡은 바를 완수하는 것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를 짊어지는 것을 개인적 책임으로, 집단과 사회의 공공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사회적 책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60) 『주역』, 『繫辭下』, 제5장, “子曰德薄而位尊하며 知小而謀大하며 力小而任重하면 鮮不及矣나니”

61) 『주역』, 『重天乾卦』, 文言, “居上位而不驕하며 在下位而不憂하나니”

62) 『論語』, 『泰伯』, “曾子 | 曰士 | 不可以不弘毅나 任重而道遠이니라”

의 소중한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맡은 임무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삶을 넓고 굳세게 살아야 하는 것은 자신이 맡은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에서는 “말이 어그러져서 나가는 것은 또한 어그러져서 들어오고, 재화가 어그러져서 들어 온 것은 또한 어그러져서 나가는 것이다.”⁶³⁾라고 하여, 말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똑같이 돌려받게 되고, 정당하지 않게 들어 온 재화는 똑같은 방식을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맹자』에서는 “좌우에서 모두 어질 다고 하여도 아직 쓰지 않고, 모든 관리가 어질 다고 하여도 아직 쓰지 않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어질 다고 한 이후에 살피서 어짐을 본 연후에 등용하며, 좌우에서 모두 불가하다고 하여도 듣지 않고, 모든 관리가 불가하다고 하여도 듣지 않고,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한 이후에 살피서 불가함을 본 연후에 버리는 것이다.”⁶⁴⁾라고 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사람을 쓰고, 버리는 데 있어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함을 논하고 있다.

책임의 한자를 분석하면, ‘임무 책(責)’은 일(一)과 토(土) 그리고 패(貝)로, 땅에서 전개되는 하늘의 작용이고, ‘맡길 임(任)’은 인(亻)과 임(壬)으로, 사람에게 맡겨진 하늘의 일이다. 즉, 책임은 땅에서 전개되는 하늘의 작용을 따라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유학 경전에서 책임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임무를 다하는 것이자, 자신의 지위와 덕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실행해 가는 것이다. 즉, 자신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는 것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63) 『대학』, 傳之10章, “是故로 言悖而出者는 亦悖而入하고 貨悖而入者는 亦悖而出이니라”

64) 『孟子』, 『公孫丑章句下』, “左右 | 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며 諸大夫 | 皆曰賢이라도 未可也하고 國人이 皆曰賢然後에 察之하여 見賢然後에 用之하며 左右 | 皆曰不可라도 勿聽하며 諸大夫 | 皆曰不可라고 勿聽하고 國人이 皆曰不可然後에 察之하여 見不可焉然後에 去之하니라”

2.4. 존중(尊重)과 배려(配慮)

먼저 존중의 선진유학적 의미를 보면, 『예기』에서는 “사랑은 정의의 근본이고 순응함의 본체이니, 그 사랑을 얻은 사람은 높아진다.”⁶⁵⁾라고 하여, 존중에 대한 개념보다 존중의 대상을 밝힌 것이다.

『중용』에서는 “사랑은 사람이니 아버이를 친하게 하는 것이 위대하고, 의리는 마땅함이니 어진 이를 존중하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아버이를 친히 함의 강등과 어진 이를 높임의 등급에서 예가 생겨난 것이다.”⁶⁶⁾라고 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어진 사람을 존중해야하고, 그 어진 사람을 존중하는 등급에서 예절이 생겼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또한 『예기』 「곡례(曲禮)」편에서는 “대저 예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니, 비록 짐을 지고 파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존중이 있어야 하니, 하물며 부귀한 사람이겠는가? 부귀하고 예를 좋아하면 교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하지만 예를 좋아하면 뜻을 지켜가지 않는 것이다.”⁶⁷⁾라고 하여, 존중은 예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으로 시장에서 짐을 지는 사람이나 부귀한 사람의 지위에 따른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논어』에서는 “군자는 현인을 존중하고 대중을 포용하며, 선(善)을 아름답게 하고 불능한 것을 불쌍히 여기니 내가 큰 어둠을 할진대 사람들이 어찌 포용하지 않으며, 내가 어질지 못한 진대 사람들이 장차 나를 막을 것이니 어찌하여 사람을 막겠는가?”⁶⁸⁾라고 하여, 어진 사람을 존중해야 함을

65) 『禮記』, 『禮運』, “仁者是 義之本也이오 順之體也니 得之者 | 尊이니라”

66) 『中庸』, 제20장, “仁者는 人也니, 親親이 爲大하고 義者는 宜也니, 尊賢이 爲大하니 親親之殺와 尊賢之等이 禮所生也니라”

67) 『예기』, 『曲禮』, “夫禮者는 自卑而尊人이니 雖負販者라도 必有尊也하니 而況富貴乎야? 富貴而知好禮則不驕不淫하며 貧賤而知好禮則志不懾이니라”

68) 『論語』, 『子張』, “君子는 尊賢而容衆하며 嘉善而矜不能이니 我之大賢與인대 於人 何所不容이며 我之不賢與인대 人將拒我니 如之何其拒人也리오”

논하고 있다.

또한 『맹자』에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고, 특히 먼저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⁶⁹⁾고 하였다.

이상에서 선진유학의 경전에서 존중은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사랑(仁)을 실천하는 어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마음가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김인 것이다.

다음으로 배려에 대해 고찰해보면, 선진유학의 경전에서 배려는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실천적 입장에서 논하고 있다. 먼저 『논어』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대저 어진 사람은 자기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기가 통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통달하게 하는 것이다.”⁷⁰⁾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랑의 마음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또 『논어』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헤아릴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헤아릴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배려를 밝히고 있다.⁷¹⁾

『중용』에서는 배려의 실천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윗자리에 있어서 아래를 능멸하지 않고, 아랫자리에 있어서 위를 당기지 않고, 자기를 바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으면 원망이 없으니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⁷²⁾

69) 『孟子』, 『離婁章句下』, “君之視臣이 如手足이면 則臣視君을 如腹心하고 君子視臣이 如犬馬면 則臣視君을 如國人하고 君之視臣이 如土芥면 則臣視君을 如寇讐나이다”

70) 『論語』, 『雍也』, “夫仁者는 己欲立而立人하며 己欲達而達人이니라”

71) 『論語』, 『公冶長』, “子貢이 曰我不欲人之加諸我也를 吾亦欲無加諸人하노이다”

즉,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모욕하지 않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배려는 관심과 존중 그리고 애정의 표현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말과 마음, 행동이다.⁷³⁾ 특히 사회에서는 수직적 관계에서 존중과 양보를 통한 사회적 배려는 우리가 실천해야 할 윤리적 가치이다.

『맹자』에서는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홀아버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 하고,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독거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니, 이 네 가지 사람은 세상에 곤궁한 사람으로 고향 곳이 없는 사람이다.”⁷⁴⁾라고 하여, 천하에 궁핍한 사람은 홀아버, 과부, 고아, 독거노인으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를 논하고 있다. 즉, 유희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세계인 대동 사회는 배려가 실천되는 사회라 하겠다.

한자에서 짝 배(配)는 ‘넓고 큼은 천지와 짝하고, 변하고 통함은 사시와 짝하고, 음양의 뜻은 일월과 짝하고, 이간의 선은 지극한 덕과 짝한다.’⁷⁵⁾라고 하여, 짝은 하늘과 짝하고, 자신의 본성인 덕과 짝하는 것이며, 생각하려(慮)는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이다. 즉, 하늘과 짝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배려라 하겠다.

72) 『중용』, 제14장, “在上位하여 不陵下하며 在下位하여 不援上이오 正己而不求於人이면 則無怨이니 上不怨天하며 下不尤人이니라”

73) 일반적으로 배려는 행위자가 자신과 상호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 낯선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 공동체, 동·식물과 같은 환경 공동체와의 관계를 헤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어떻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선주, 앞의 논문, 226쪽)

74) 『孟子』, 『梁惠王章句下』, “老而無妻曰鰥이오 老而無夫曰寡이오 老而無子曰獨이오 幼而無父曰孤니 此四者는 天下之窮民而無告者이라”

75) 『주역』, 『繫辭上』, 제6장, “廣大는 配天地하고 變通은 配四時하고 陰陽之義는 配日月하고 易簡之善은 配至德하니라”

3. 맺음말

본 논문은 선진유학을 대표하는 경전인 삼경과 사서, 그리고 『예기』에서 밝힌 인성교육 8대 핵심 가치덕목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문에서 고찰한 인성교육 8대 핵심 가치 덕목인 예·효·소통·협동·정직·책임·존중·배려의 선진유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에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화합하는 것이다. 또 하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자,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의 근본이 되며, 또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가 중요하다 하였다.

다음 소통은 내 마음과 내가 통하고, 내 마음과 하늘마음이 소통되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소통되는 것이라 하였다. 특히 공경은 하늘과도 소통하고,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근본이라 하였다. 협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협동에는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정직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바르고 곧은 마음에서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정직은 상황이 달라져도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용기의 표현이라 하였다. 책임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와 덕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실행해 가는 것이라 하였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지키는 마음가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긴다는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려는 선진유학에서 정확한 연원을 찾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라 하겠다. 배려는 관심과 인내 그리고 애정의 표현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말과 행동인 것이다.

이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는 인성교육 8대 핵심 가치 덕목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인성교육을 통해 성숙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덕목의 근본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주역(周易)』
 『서경(書經)』
 『예기(禮記)』
 『효경(孝經)』
 『논어(論語)』
 『중용(中庸)』
 『맹자(孟子)』

이창호 외, 『21세기 바른 인성을 위해 배우고 가르쳐야 할 인성 8대 덕목』, 벗어나래, 2018.

임병학, 『중용, 주역으로 풀다』, 동남풍, 2018.

_____, 『하늘을 품은 한자, 주역으로 풀다』, 골든북스, 2018.

고제석, 『『논어』기반 인성교육 평가척도의 이론토대 연구』, 『東洋哲學研究』 제 88집, 동양철학연구회, 2016, 205~231쪽.

김민수,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개념의 근거』, 『교양교육연구』 제8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169~206쪽.

김선주, 『인성교육 진흥법 핵심가치덕목에 근거한 대학생용 인성 척도 개발』, 『교양연구회』, 제11권 제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217~258쪽.

김영래 외,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가치덕목’과 ‘핵심 역량’의 연구 모형에 관한

-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20권 2호, 한독교육학회, 2015, 21~45쪽.
- 박인현, 『인성교육진흥법상 핵심가치·덕목과 법 교육』,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3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5, 25~52쪽.
- 윤태후, 『인성교육의 관점에서 본 『소학』의 효사상』, 『儒學研究』 제43집, 충남대 유학연구소, 2018, 243~275쪽.

국립국어원, www.korean.go.kr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Eight Great Virtues
in Personality Education in Advanced Confucianism

Park, Yong-Geum* · Cho, Yong-Tae** · Lim, Byeong-Hak***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eight key virtues in Personality Education that were revealed in the Three Classics, the four Chinese Classics, and the Liji representing Confucianism.

In Chapter 2, researcher examined the origin of the propriety, filial duty, interaction, and cooperation at the Confucianism. Propriety(禮) is to thank the love of heaven, to conform to the sky and to harmonize with the heart of man. And it is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between man and animal and the meaning of meeting of heaven and man, and the reason that meeting of man and man.

Next, Confucianism said that filial duty(孝) is the foundation of the moral training, which not only at taking care of the parents but at making his mind right,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mind which please the heart of the parents and honor their wish.

And it said that intercommunication is getting along my mind and I, my mind and heaven's mind, and my mind and other people. Especially, it is said that 'respect' is the basis of communicating with the sky and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Finally cooperation is the gathering of the minds of peopl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leader in leading the society to cooperate. In order for us to harmonize with each other, first we must acknowledge the differences each other and harmonize with them.

* President of the CheongPung Personality Etiquette Association, a divisional corporation

** Ph.D. course of WonKwang University

*** Professor of Oriental Studies at Wonkwang University

In Chapter 3, we examined the sources of Confucianism about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and consideration. It said that honesty is as a mind that is unbiased, straight and upright, is to tell the truth to oneself and others without falsehood or embellishment.

Second, the responsibility is that fulfills the duty which heaven given to us, and we performs the social role appropriately according to his status and virtue.

Respect begins with the attitude of raising the opponent and lowering me, acknowledge differences each others and consider to treasure, and reveal that we should respect the person with Ren(仁), the personality mind.

Finally, consideration is as an expression of interest, respect and affection, which are the words and actions that make a concession and respect what the person wants from the opponent.

We can understand the concept of personality virtue deeply by studying the origin of Confucianism about eight major virtue education and can help in personality education's field.

Key Words: Personality Educationm, Confucianism, propriety, filial duty, interaction, cooperation,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consideration.

<필자소개>

이름: 박용금

소속: (사) 청풍인성예절협회

전자우편: pyk7771@naver.com

이름: 조용태

소속: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전자우편: egomul@hanmail.net

이름: 임병학

소속: 원광대학교 동양학과

전자우편: phlim39@naver.com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4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24일

